

일본 농림성 발표

‘식료 · 농업 · 농촌 기본계획’

일본 농림수산성은 향후 10년의 농정 방향을 제시하는 “식료 · 농업 · 농촌 기본 계획”을 발표했다. 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 재검토를 하고 다. 아베정권이 내세우는 농업 · 농촌 소득 증대를 새롭게 명기하고, 농업 소득과 농촌 지역의 관련 소득을 합쳐 8조엔을 목표로 했다. 수요 확대를 위해 가격이 비싼 야채나 과일, 축산물 등의 증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힌 것이 큰 특징이다.

〈식료 · 농업 · 농촌 기본 계획의 포인트〉

항목	현황('13년 실적)	'25년 목표	증가율
① 식량자급률			
- 칼로리 기준	39%	45%	+6%
- 생산액 기준	65%	73%	+8%
② 쌀 정책			
- 사료용 쌀 생산량	11만톤	110만톤	10배
- 쌀가루 쌀 생산량	2만톤	10만톤	5배
③ 소득 증대			
- 농업 소득	2.9조엔	3.5조엔	+0.6조엔
- 농촌 관련 소득	1.2조엔	4.5조엔	+3.2조엔
④ 농지 집적 목표			
- 농업 종사자*에의 집적율	50%	80%	+30%

* 농업 종사자이란 인정 농업자나 취락영농, 인증 신규 취농자

■ 식량자급률 목표의 변화

- 식량자급률 목표는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여 칼로리 기준으로 '10년에 책정한 목표치 50%를 45%로 인하하는 한편, 생산액 기준으로는 현행 목표 70%에서 73%로 인상하여 '돈 되는 농업'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.
- 칼로리 기준의 자급률 목표는 낮쳤으나, 현재기준 39%에서 6% 상향조정 되었다. 농정 · 농협 개혁과 TPP의 영향으로 인한 생산자의 불안을 불식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 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요구된다.
- 또한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자급률 목표의 상향조정은 칼로리 기준에서 기여도가 낮은 야채의 진흥을 중시하는 등 소득 증대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였다.
- 기본 계획에는 품목별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, 특히 쌀 정책의 키 포인트인 사료용 쌀은 '25년도에 현재의 10배인 110만톤을 생산 목표로 했다. 주식용 쌀 생산이 감소 할 것으로 예산하여 그 양을 사료용으로 커버할 계획이며 농업 개혁이 목표로 하는 “논 완전 활용(水田フル活用)”을 구체적인 생산 목표로 제시했다.
- 금번에는 또한 국내의 농지와 농가를 모두 활용한 경우의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“식량자급력” 지표도 처음 제시했다. 수입을 못할 경우에도 일본 국내에서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 할 수 있을 정도의 농지와 농가를 확보하고, 기반이 강한 농업을 목표로 한다.

■ 쌀가 용 쌀과 사료용 쌀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침

- 쌀가루용 쌀 10만톤, 사료용 쌀 110만톤으로의 생산확대 목표를 위해 농림수산성은 쌀가루 용 쌀과 사료용 쌀의 진흥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.
- 쌀가루용 쌀에 관해서는 쫄면이나 쫄리 형태의 가공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이며 경쟁관계에 있는 밀가루에 비해 맛과 보존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, 과제인 가격도 일정정도는 억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.

- 쌀가루용 쌀의 생산량은 피크시 약 4만톤 있었으나 수요 침체로 인해 최근 감소 경향에 있으며, '14년산은 약 1만 8000톤에 머물렀다. 쌀은 딱딱하기 때문에 제분 비용이 비싸서 가격이 밀가루보다 20% 이상 높다. 게다가 품질도 큰 차이가 없어서 밀가루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.
- 따라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수요확대를 위해 쥘레나 젤리 등 새로운 가공 기술의 이용을 포함시켰다. 민간기업이 개발 한 쥘레 형태의 "코메네쥘레(コメネピュレ)"나 국가가 개발 한 젤리 "미 젤(米ゲル)"은 빵 등의 가공품에 사용시 쫄깃한 식감이 되고 보습성이 높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, 빵 이외의 다양한 제품의 가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가격 역시 향후의 보급 상황과 국가의 지원에 따라서는 일정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- 그러나 쥘레나 젤리만으로는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가루 형태의 이용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며, 기본계획에는 유통 · 가공비 절감을 위한 가공 기술의 향상과 개발 및 보급도 포함되어 있다.



코메네쥘레(コメネピュレ)

<http://akitakomachi.co.jp/komenepuree/>



미 젤(米ゲル)

http://www.naro.affrc.go.jp/project/results/laboratory/nfri/2013/13_064.html

(자료원: 일본농업신문)

■ 시사점

- 칼로리 기준보다 생산액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는 이번 정부의 목표는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해 일본산 농수산물식품의 가격을 올려 수입식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보인다. 그 중에서 한국산 농수산물식품은 저렴한 수입품이 아닌 일본국산품과 동등한 자리를 얻기 위해 품질과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.
- 또한 쌀의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쌀가루의 새로운 방식으로의 활용은 한국 내수 수요 및 수출용 제품에도 벤치마킹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